



남원시가 시책사업 추진중인 '5일장 찾아가는 희망복지 상담실'이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주민참여형 저비용 지역복지사업'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남원시, 지역복지사업 '우수'

보건복지부, '5일장 찾아가는 희망복지 상담실' 운영 선정

남원시가 시책사업 추진중인 '5일장 찾아가는 희망복지 상담실'이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주민참여형 저비용 지역복지사업'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복지사업을 평가를 통해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민관협력 우수시책 사업을 발굴하여 전국적으로 확산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차 자료 검토 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수행의 적절성, 전문성, 협력성, 자료작성의 충실도에 따라 서면심사를 실시한 결과 5일장 찾아가는 희망복지 상담실 운영이 선정되었다.

5일장 찾아가는 희망복지 상담실은 지난해 3월부터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인 공설시장 내 합터에서 지역 내 복지 소외계층을 상시 발굴하고 체계를 구축하여 수요자 중심의 복지 상담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복지 소외계층을 지속적으로 보호 및 관리하고 현장복지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남원시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주축이 되어 남원의료원, 전북노인요양병원, 사회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노인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8개 기관이 참여한 민·관 협력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 남원시만의 시책사업이다.

복지 상담실로 호응을 얻고 있다.

그동안 운영 결과를 보면 2015년에는 총 1,293명이 상담실을 이용하였으며 이들에게 지원한 금액은 1억 6,400만원을 민·관의 자원을 활용 연계하였으며, 올해 5월말 현재 929명이 상담실 이용, 이 중 848명에게 1억여원을 지원하여 다양한 복지욕구를 해결해 주는 등 현장에서 추진하는 복지행정을 더욱 탄탄하게 다지고 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복지행정의 공공적 지향점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적시, 적기에 제공하는 것으로 '시민이 행복해야 우리가 행복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니만큼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이 폭넓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민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5일장 희망복지 상담실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살기좋은 남원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군은 오는 15일부터 7월 10일까지 하나로마트 수원유통센터에 순창군 농산물 직거래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판매되는 농산물은 복분자, 블루베리, 오디 3가지 품목이다.

수도권 대형마트 순창군 농산물 직거래 행사

내일부터~7월 10일까지... 수원유통센터에 복분자·블루베리·오디 판매

수도권 대형 유통센터에 순창군 복분자, 블루베리, 오디 직거래 박람회 불고 있다.

군은 오는 15일부터 7월 10일까지 하나로마트 수원유통센터에 순창군 농산물 직거래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판매되는 농산물은 복분자, 블루베리, 오디 3가지 품목이다.

또 서울 창동유통센터에서도 오는 23일부터 7월 24일까지 직거래 박람회 진행된다. 모두 농협중앙회가 직영하는 대규모 유통센터다. 특히 2곳 판매기간이 58일간이나 된다는 점에서 이번 직판행사는 농산물 판매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복분자의 재고량

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 순창군이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 중이었던 직판행사로 복분자 판매에도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창조합공동사업법인 측은 불륨감과 시각적 만족을 극대화 하는 진열 방식과 우수한 품질의 복분자, 블루베리, 오디를 선별 제공해 순창 농산물의 판매 확대는 물론 순창 농산물의 전국적 홍보에도 공을 들일 계획이다.

실제 순창조합공동사업법인 관계자는 "이번 직판행사를 통해 최소 1억 6천만원 이상이 판매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상품 선별은 물론 홍보에도 최선을 다해 농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직판행사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사업의 지원을 받아 순창군조합공동사업법인, 구농협협동조합, 서순창농협협동조합이 주관하며 순창군 건강장수사업소가 함께 한다.

한편 순창군은 이번 직판행사 이외에도 남서울농협직거래 장터, 신세계백화점 광주점 특판행사, 지매결연 지역 직거래 장터, 전라북도 도단위 연합매개팅 직거래 장터, 귀농귀촌 박람회, 고속도로 휴게소 직거래 장터 등 다양한 직판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군 공무원과 유관기관 등이 함께 하는 농산물 사주기 운동도 적극 추진해 지역 농산물 판매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고창군, 치유음식 과정 개설·운영

7월 15일까지 매주 목·금요일 농기센터 생활과학관서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치유음식 개발 확산과 치유음식 상품화 위한 인적자원을 육성하는 치유음식 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군은 지난 4월부터 오는 7월 15일까지 매주 목·금요일 총 24회에 걸쳐 농업기술센터 생활과학관에서 전문농업기술연구원 및 치유음식에 관심이 있는 군민 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치유음식 교육은 정정희 국제요리학원장과 김의순 요리연구가를 초빙해 고창의 주요 특산물을 활용한 치유음식 삼차림 과정, 치유음식 디저트 과정, 치유 약선 음식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교육은 전문농가식당 적용메뉴

및 비만·당뇨·고혈압 치유 삼차림, 치유음식 디저트, 치유 약선음식에 대한 이론을 병행한 실습교육으로 진행되고 있다.

치유음식개발 메뉴는 치유 전문 농가식당의 식단과 체험농장의 체험 프로그램에 활용 보급되어 치유음식으로 상품화 될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지난해 치유 식단을 개발하였고 올해 치유음식을 상품화하기 위한 교육을 추진함으로써 치유음식을 통한 감성 농업을 실현하여 고창이 치유 농업의 선두주자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순창군, 바른먹거리 이용 당뇨치유 학교 운영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당뇨치유 프로그램인 '순창 바른먹거리 당뇨학교'가 13일 문을 열어 16일까지 3박 4일간 진행된다.

이번 순창바른먹거리 당뇨학교는 순창건강장수연구소 일원에서 합숙형태로 진행되며 전국에서 모인 당뇨환우 및 교육생 40여명이 참여했다.

순창군이 운영하는 바른먹거리 당뇨학교는 약물치유에 집중하는 기존 당뇨치료 패와는 달리 건강한 먹거리와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당뇨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 순창군이 운영하는 치유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번 당뇨학교는 교육생들에게 신뢰성을 심어주기 위해 전문 교수진이 참여한다. 당뇨학교 초기부터 참여한 충남대학교 이계호 교수 이외에도 당뇨 명의인 조선대학교병원 당뇨센터장 배화연교수, 한의학 한주석 박사

등이 강사로 참여해 당뇨치유의 패러다임에 대해 강의한다.

교육생들은 지난 13일 첫날 일정으로 혈관 건강도 측정검사 및 인바디검사를 통해 사전 몸 상태를 체크하고 태초먹거리로 유명한 이계호 교수로부터 당뇨와 우리 몸의 관계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두 번째 날인 14일부터는 당뇨에 좋은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보고 먹어보는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팽발산책로 등 지역 힐링관광자원을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될 계획이다.

한편 순창군이 운영하는 바른먹거리 당뇨학교는 올해 16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관광과도 연계한 관광코스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당뇨학교 참가 신청은 건강장수사업소 전화 063 - 650 - 1527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임실군과 한국외식업중앙회전북교육원(원장 정철교)은 '2016년도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주 위생교육'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10일 군민회관에서 관내 영업주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일반음식점 관련 주요 법령제도, 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 식재료 원산지 표시제, 식중독발생예방 위생관리강화와 세무·노무관리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군은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군민들의 높아진 관심을 반영해 업소환경개선, 고객만족 서비스 및 친절교육을 병행했으며,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도 교육했다.

심민 군수는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수준 높은 외식 서비스를 제공해 다시 찾고 싶은 임실 만들기에 노력해 달라"며 "건강한 식생활과 친절한 서비스 문화로 군민과 관광객에게 신뢰받는 업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고창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개최

고창군이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반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13일 군에 따르면 '상반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인 김상호 부군수와 군의원, 군 보건소장,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와 여성단체, 민간인 등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군수실에서 열렸다.

이날 상수도분야 주요 업무실명과 2016년도 역점 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와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 운영에 대한 자료를 통해 수돗물에 대한 군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의견을 나눴다.

수질평가위원들은 "수돗물 급수과정 체계화 되어 있고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어 가정에 공급되는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겠다"며, "앞으로도 광역상수도 수도시설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수돗물의 안전성과 신뢰도 확보를 위해 수질검사 결과를 매월 군청 홈페이지 공표하고 있으며 매년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발간해 수돗물의 안전성을 대대적으로 알리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순창경찰, 교통사망사고 대책회의

순창경찰서(서장 최규은)는 13일 경찰서 2층소회의실에서 각 과장 및 계장, 과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사망사고 예방 대책회의를 개최 했다.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최근에 발생한 교통사망사고 발생원인 등 사고유형을 분석해 문제점 및 사고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각 과출소별 사망사고 발생 위험지역을 선정, 사고 다발구간 집중관리와 사망사고 예방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어 교통·지역경찰 협업으로 주요 교차로 중심의 교통관리, 신호위반·이륜차(안전모미착용),보행자(무단횡단)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및 계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최규은 서장은 "전 직원은 교통사망사고 줄이기를 위한 공감을 형성하고 다양하고 실질적인 교통안전활동으로 교통사망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